

미국의 첫 개신교 선교사들 대한 연표

옥성득

1883년

- 4월 29일 이수정 요코하마 노월정교회에서 미북장 선교사 녹스에게 세례 받음, 이후 한글 성경 번역
- 9월 12일 가우처 시카고-뉴욕행 열차에서 민영익 보빙사 일행 만남.
- 11월 가우처 미국 북감리회 해외선교부에 한국 선교 요청하며 \$2,000 현금

1884년

- 1월 26일 이수정의 “마케도니아인의 부름” 편지 미국 잡지 The Illustrated Christian Week에 출판
- 3월 동일한 이수정의 편지 The Missionary Review에 소개
- 3월 뉴욕의 맥윌리엄스 한국 선교비 \$5,000 현금
- 3월 가우처가 매클레이에게 한국 선교 탐사 여행 요청
- 4월 28일 미북장로회 해외선교부가 헤론 의사를 한국선교회 첫 선교사로 임명(장#1)
- 6월 10일 상해의 알렌 의사 한국 이전 요청 편지 발송
- 6월 24일 매클레이 서울 도착
- 7월 2일 매클레이 김옥균 통해 고종의 선교 허락 받음
- 7월 8일 매클레이 서울 떠남.
- 7월 22일 미북장로회 해외선교부 엘린우드 총무 전보로 알렌의 한국행 허락(장#2)
- 7월 28일 미북장로회 해외선교부 언더우드를 한국 선교사로 임명(장#3)
- 9월 20일 알렌 제물포 도착
- 9월 22일 알렌 서울 도착(첫 내한 선교사)
- 10월 4일 스크랜턴 미북감리회 해외선교회 한국선교회 첫 선교사로 임명(감#1)
- 10월 26일 알렌 가족 서울 정착 (첫 정착/주재 선교사) 이때 복주의 영국성공회 선교사 윌프 서울 방문
- 10월 스코틀랜드성서공회 권서 자격 및 영국공사관의 한국 조사 부탁을 받고 지푸의 다우스웨이트 의사(중국내지선교회 소속) 부산, 제물포, 서울 등 방문(6주)
- 11월 10일 스크랜턴 대부인 미감리회 여자해외선교부 첫 한국 선교사로 임명됨
- 11월 언더우드 목사 안수
- 12월 4일 갑신정변. 알렌 의사의 민영익 치료
- 12월 4일 스크랜턴 목사로 안수
- 12월 16일 언더우드 샌프란시스코 출발
- 12월 17일 아펜젤러 결혼식 (엘라 닷지 양), 랭캐스터제일감리교회
- 12월 20일 아펜젤러 미북감리회 해외선교회 한국선교회 두 번째 선교사로 임명됨(#3)

1885년

- 1월 15일 언더우드 요코하마 도착
- 2월 아펜젤러 목사 안수, 스크랜턴 아펜젤러 샌프란시스코 출발
- 2월 아펜젤러, 스크랜턴 요코하마 도착
- 2월 이수정의 한글 마가복음 요코하마에서 출판
- 3월 26일 언더우드, 아펜젤러 부부 요코하마 떠나 3월 31일 나가사키 경유
- 4월 2일 아펜젤러 부부, 언더우드 부산 경유
- 4월 5일 오후 3시 아펜젤러 부부, 언더우드 제물포 도착.
일본주재 미국공리회 선교사 두 명(Taylor, Scudder)도 한국 선교 탐사 차 도착
- 4월 5일 저녁 언더우드 서울 도착 (첫 목회선교사) [다른 두 선교사도]
아펜젤러 부부는 정세 불안 때문에 미국공사관의 반대로 제물포에서 기다림
- 4월 9일 미국공리회 소속 두 선교사 서울 떠나 제물포로
- 4월 10일 광혜원 개원
- 4월 11일 아펜젤러, 두 공리회 선교사 제물포 떠나 나가사키로
- 5월 3일 스크랜턴 제물포 도착
- 5월 6일 스크랜턴 서울 도착 (첫 감리회 선교사)
- 5월 11일 언더우드 교아원 개원
- 6월 20일 아펜젤러 부부, 헤론 의사 부부, 스크랜턴 가족, 스크랜턴 대부인 제물포 도착
- 6월 21일 헤론 부부와 스크랜턴 가족 서울 도착
- 7월 29일 아펜젤러 부부 서울 도착